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보도자료

문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국 | 홈페이지 KOCCONet.or.kr | 전화 02)831-1930 | e메일 kocconet1930@naver.com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에게 아동 정책 결의문 전달

11월 9일 국회 방문…제22·23기 의장단, 아동이 직접 마련한 정책 제안
'학업 부담과 아동 권리' 주제로 아동총회에서 채택한 14개 결의문에 아동의 목소리 담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는 11월 9일(월) 제22·23기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의장단 13명은 오전 11시에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김희정 교육위원장을 만나 결의문을 전달하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실에 방문한 의장단은 먼저 14개 조항이 담긴 대형 결의문 피켓을 김희정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결의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 전달한 결의문은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국회와 국제청소년터에서 개최된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직접 논의하고 채택한 14개 정책 제안으로 구성됐다.

결의문 조항을 꼼꼼히 살펴본 김희정 위원장은 의장단의 질문과 의견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교육위원께도 꼭 아동총회 결의문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또 “아동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을 들으며,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바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현장체험학습 개선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 등 아이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의장단은 이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에게도 결의문을 전달했다. 14개 조항이 담긴 대형 결의문 피켓을 이만희 위원장께 전달한 의장단은 이어 올해 아동총회의 주제였던 ‘학업 부담과 아동 권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의 역할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였으며, 이만희 위원장은 의장단의 질문마다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들려주며 약 30분간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아동들이 토론을 거쳐 만든 14개의 결의문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아동들과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해 학업에만 전념하기보다는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학습과 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독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의장단은 “모든 위원장들께서 진심으로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 좋았다.”며, “특히 여러 국회의원들께도 결의문을 소개하고, 정책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겠다는 말씀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는 ‘학업 부담과 아동 권리’를 주제로 ‘Less 학업 부담, More 아동 건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아동들은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논의하고, 체험학습 확대와 쉴 권리 보장, 진로 교육 내실화,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강화, 교육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결의문에 담았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근거해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와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아동 참여의 장이다. 아동들은 주제 선정부터 토의, 결의문 채택에 이르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은 “아동이 직접 논의하고 제안한 결의문은 아동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전달식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전달식 사진
[붙임 2]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붙임 1]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전달식 사진

▼ 11월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한 제22·23기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 아동들이 김희정 교육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11월 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제22·23기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 아동들이 김희정 교육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11월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한 제22·23기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 아동들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11월 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제22·23기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 아동들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붙임 2]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1.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현장 체험학습을 1년에 최소 1회, '소풍'은 2회를 보장해 주세요.

2.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쉬는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3.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해 주세요.

4. 필기시험이 많은 주에는 1주일 동안 골고루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5. 모든 지역에 초등 아동들이 일정 기간 직업인에게 직접 진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주세요.

6. 보건복지부는 아동 전용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앱을 만들어 운영해 주세요.

7. 모든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8. 정부는 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 동아리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9. 정부는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가 낮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세요.

10. 교육부는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을 위한 하교 후 Wee클래스 대면 운영을 해주세요.

11. 교육부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을 개선하고 홍보해 주세요.

12.「진로와 직업」 교과의 교육 과정 취지 실현을 위한 세부 활동 평가 계획 수립 및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13.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수립·변경할 때 충분한 예고와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와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14. 교육부에서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소그룹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세요.